

# 장수누리파크 캠핑장 인기

7월~8월 성수기 예약 접수 19개 사이트, 샤워시설 등 공원산책·휴양시설 근접



해발 500고지 위치한 장수군 장수누리파크 오토캠핑장이 7월~8월 성수기 시즌 예약을 접수받고 있다.

여름 더위가 시작되면서 캠핑 여행지로 장수군이 인기를 끌고 있다. 그 중에서 장수누리파크 오토캠핑장은 장수읍내에 위치하면서 주변에 휴양시설이 근접해 있어 인기를 더하고 있다. 농촌테마파크 내 위치한 '장수누리파크 오토캠핑장'은 19개의 사이트와 취사장, 샤워시설,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고루 갖춘 소규모 캠핑장으로 아담한 사이즈에 공원 산책과 시골 정취를 느낄 수 있어 여유를 찾아 휴양을 즐기는 캠핑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해발 500고지에 위치한 장수는 산경표에 의한 우리전통지리로 고갈해보면 백두대간의 거대한 산줄기가 덕유 연봉과 백운산을 지나 장수 영

취산에서 서쪽으로 금남호남정맥을 나눠 놓고 금남호남정맥의 산줄기는 서북으로 달리다가 무룡고개에서 우리나라 8대 종산이자 금남호남정맥의 초고봉인 장안산을 솟구쳐 놓았다. 장안산을 둘러싸고 산 아래 위치한 장수를 분지는 구름도 쉬어 넘는 곳으로 맑은 공기와 한우, 사과, 오미자

등 먹거리가 풍부하고 특히 의암공원의 야경과 작은영화관은 지루할 틈 없는 캠핑에 금상첨화이다. 현재 7월~8월 성수기 시즌 예약을 접수받고 있으며 예약은 장수누리파크 홈페이지(www.jangsu-huyang.kr/nuripark)에서 가능하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난 25일 진안, 장수, 무주에서 6.25 전쟁 발발 68주년을 맞아 6.25 기념행사를 열었다. 사진은 진안에서 열린 6.25 기념행사.

## 진안군·장수군·무주군 제68주년 6.25행사 개최

진안, 장수, 무주에서 6.25 전쟁 발발 68주년을 맞아 6.25 기념행사를 열었다. 진안군은 25일 오전 11시 이항로 군수 이한기 도의원 당선자, 정옥주, 조준열 군의원 당선자, 6.25참전유공자와 유가족, 보훈단체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6.25호국영웅기념탑(만남의 광장) 앞에서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모범유공자 표창, 대회사, 기념사, 6.25노래 제창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호국안보결의대회도 함께 개최하여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호국충정을 되새기고 안보의식을 공고히 다지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원도의 6.25참전유공자 진안군지회장은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없기를 기원하며,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은 6.25참전자 여러분들의 희생을 결코 잊지 않고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수군은 25일 11시 장수 한누리전당 산티관에서 6.25전쟁 제68주년 기념식 및 호국영웅 위로연 행사를 안동환부군수, 유기훈군민장, 장영수 장수군수 당선자 및 6.25참전 유공자와 보훈, 안보단체 회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가졌다.

대한민국 6.25참전유공자회 장수군지회(회장 임순승)주관으로 마련된 이날 기념식에서 한누리약단의 예술공연을 시작으로 6.25참전유공자회 장수군지회 최일엽, 최영린 회원과 상이군경회 이훈, 전물군경유족회 소정숙, 월남참전자회 김명근, 고엽제후유증전문회 박용근, 재향군인회 유현종 등 7명에게 장수군수 표창패를 전달하며 호국영웅들을 위로했다. 특히 장수군청 주민복지실에 근무하는 김정미씨가 함께 시상식에 올라 그동안 6.25참전유공자회 활동에 아낌없는 지원과 열정의 공로를 인정받았다. 무주군도 무주읍 전통문화의 집에서 제68주년 6.25 기념행사를 열었다. 대한민국 6.25참전 유공자회 무주군지회(회장 주공석)가 주최·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황정수 무주군수와 무주군의회 유송열 의장을 비롯한 6.25 참전 유공자회 회원, 보훈단체 회원 등 2백여 명이 참석했으며, 행사는 기념식과 6.25 노래 제창, 만세삼창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전문선 기자

## 마이산에서 스탬프만 찍어도 선물이 쵸쵸



진안군은 7월 1일부터 마이산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마이산 북부 스탬프투어를 운영한다.

북부마이산 주요명소 5곳 방문 인증 시 선물 증정 7월 1일부터 본격 운영

한편, 전북투어패스카드는 전라북도를 여행하는 관광객들에게 관광혜택을 제공하고자 출시한 카드며, 이번에 선물로 증정하는 투어패스카드는 1일권 관광형카드로 14개 시·군 자유이용가맹점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은 마이산 북부에 조성된 관광단지과 주요명소를 홍보하기 위해 마이산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마이산 북부 스탬프투어를 7월 1일부터 본격 운영한다. 스탬프투어는 마이산 북부의 주요명소를 방문한 후 리플릿에 인증도장을 모을 수 있도록 기획된 관광 프로그램으로 마이산을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관광명소를 알리고 즐거움을 제공하고 위해 마련됐다. 스탬프투어 코스는 ▲산악초타운, ▲홍삼스파, ▲돼지문화체험관, ▲가위박물관, ▲명인명품관이며 이에 따른 투어는 기념품이 소진될 때까지 운영된다. 참여방법은 다섯 곳의 코스를 모두

방문한 후 5개의 인증도장을 찍어 제출하면 소정의 선물로 전북투어패스카드를 증정한다. 스탬프투어 활동지는 각 관광지과 마이산북부 관광안내소에 비치되어 있다. 군은 스탬프투어를 통해 전북 토산 관광과 연계하고 관광객 유치에 따른 관광산업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정청현 관광개발소장은 "미슐랭가이드에서 세계에 자랑할 만 한 산으로 추천하고 평생 한번은 가봐야 할 산으로 이름난 마이산에서 스탬프투어의 재미와 마이산 북부의 북을 들뜬 받아 가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마이산을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수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장수군은 하절기 집중호우 시 수질오염물질 유입 우려가 있는 공공수역에 대한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특별감시를 8월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폐수, 가축분뇨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6월 말까지 자율점검을 하도록 계도 한 후 집중호우를 틈탄 오염물질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로 인한 환경오염 사고의 예방을 위해 중점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단속결과 환경 관련 법률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하고, 처벌이행실태 확인을 통해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 진안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29일까지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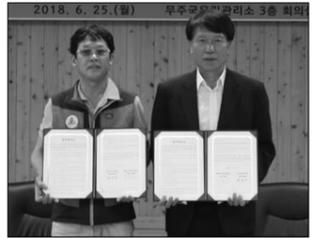
진안군 25일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예년보다 3주 앞서 수확기 유해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급격히 늘어나는 유해야생동물의 개체 수를 줄이고 농가의 농작물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피해 방지단을 운영기로 한 것이다. 그동안 피해농가에서는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위해 군이나 읍면사무소에 포획허가 신청을 하면 관련서류 검토와 현지 확인을 거쳐 포획허가를 득

하는 등 절차상의 번거로움이 많았다. 그러나 피해 방지단 운영기간에는 피해농가의 전화 한통과 빠른 대처로 조기 피해방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진안군은 피해 방지단 운영을 위해 관련계획을 읍면 시달했다. 신청지는 구제희망지역 읍면사무소에서 6월 20일부터 29일까지 신청하면 해당읍면사무소에서 대상자 확정 후 신원조회를 거쳐 오는 7월 9일부터 10월 31일까지 현지 운영할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 지역 매아리

### 진안 축사화재 안전시스템 구축 지원

진안군은 25일 축사 농가의 재산보호를 위해 축사 화재 감지와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한 시스템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군은 올해 국비 등 총 56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으며, 14농가에게 축사화재 안전시스템을 지원할 계획이다. 축사화재 안전시스템은 축사 내 각종 전선, 온도 등의 실시간 감지와 화재감지가 가능하며 화재 감지 후 농장주에게 음성 또는 영상 통보가 가능한 제품으로 일정주기 동안 축사 환경정보를 저장하여 이를 농가에 피드백 할 수 있다. 신청기준은 관내 축산농가로 무허가 축사를 소유한 농가는 해당되지 않으며, 농가당 4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냉방기, 환풍기 가동에 따른 전기 과열과 과부하로 화재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축사 화재 발생 시 축사 내 온도 등의 환경을 실시간 확인 가능하고 또 조기 감지하여 대형 재산피해를 예방하고 보다 안정적인 사육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2018. 6. 25.(월) 무주국유림관리소 3층 회의실

### 무주국유림관리소-덕유산산악구조대 산림보호 업무협약 체결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중세)는 산림재해 및 각종 불법행위로부터 산림을 효율적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해 덕유산산악구조대와 산림보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협약의 주요 목적은 국유림 등 산림에서 발생하는 재난 및 사고 예방활동과 불법행위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고 건전한 산행문화 정착을 도모하고자 함이다. 산림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산림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 지역 사회와의 협력체계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추진한 것으로 상호협력하여 산림이용객들에게 안전한 산행문화 정착 및 산림보호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과 각종 불법행위로부터 산림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건전한 산행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대한민국 홍삼 특구 진안고원  
세계주류품평회 금상  
眞心 홍삼주